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사람

(토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한 새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함

성경: 골 1:25, 엡 3:2, 9, 고전 4:1-2, 9:16-17, 뱀전 4:10

- I.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분의 경륜을 섬기고 전하며 관리하고 집행하는 청지기들을 만드시 얻으셔야 한다 — 고전 4:1, 뱀전 4:10.**
- A. ‘청지기’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경륜’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
1. 그 의미는 ‘분배하는 청지기’ 곧 ‘가족 구성원들에게 생활필수품을 분배하는 가정 관리자’이다.
 2. 청지기는 분배하는 사람, 곧 신성한 생명 공급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배해 주는 사람이다 — 눅 12:42, 16:1, 딤후 1:7, 뱀전 4:10.
 - a. 주님은 사도들을 그러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세우셨다.
 - b. 분배하는 봉사인 청지기 직분이 사도들의 사역이다.
- B.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주로 두 가지 비밀이 있다 — 롬 16:25, 계 10:7.
1. 골로새서에 계시된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이다 — 골 2:2.
 2. 에베소에 계시되고 설명되어 있는 두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이다 — 엡 3:4.
- C. 분배하는 사역에서 지극히 중요한 것은 청지기들이 신실한 이들로 발견되는 것이다 — 고전 4:2, 7:25, 눅 12:42, 마 24:45, 25:21, 눅 16:10-12, 19:17, 엡 6:21, 골 1:7, 4:7, 9, 딤후 1:12, 3:11, 딤후 2:2, 뱀전 5:12, 계 2:10, 13, 17:14.
- II.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는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절박한 필요가 있다 — 딤후 1:4, 골 1:25.**
- A.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안배이다 — 엡 3:2, 고전 9:17.
- B.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이 되었다 — 엡 3:2, 9.
1.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사용한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 a. 하나님과 관련하여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한다 — 엡 3:9.
 - b. 우리와 관련하여 ‘오이코노미아’는 청지기 직분을 의미한다 — 엡 3:2.
 - c.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께 그것은 경륜의 문제이고, 우리에게 그것은 청지기 직분의 문제이다.
 2.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자라고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 엡 3:8.
- C. 성경 전체의 중심 요점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다 — 빌 2:13, 엡 1:5, 9, 3:17상.
1.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 엡 3:9.

2.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한 새사람은 하나님의 지속적이고도 영원한 분배를 받아들인다 — 앵 2:15, 4:24, 3:17상.
 - a. 한결같이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은 새사람의 일부인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조금씩 분배하신다 — 계 22:1.
 - b.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한결같으며 영원한 분배하심은 우리를 구성하고, 우리를 조율하며, 우리를 함께 건축한다.
- D. 바울의 청지기 직분은 모든 풍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교회들 안으로 분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 골 1:25, 고전 4:1-2.
 1. 비록 바울이 수 세기 전에 신성한 계시를 완성하도록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여전히 실질적인 방식으로 신성한 계시가 완성될 필요가 있다.
 - a.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무효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 b. 바울을 통해 완성된 말씀을 가리는 것은 원수의 간교함이다 — 고후 4:3-4.
 - c.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를 얻으실 수도, 그분의 왕국과 함께 다시 오실 수도 없다.
 2.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신성한 계시의 완성이다.
 3.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는 더 많은 청지기들이 필요하다 — 딤후 2:2.

III.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은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다 — 앵 3:2.

- A.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은혜의 경륜이다 — 앵 3:2.
- B.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얻고 누리며,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 — 요 1:17, 행 20:24, 앵 3:2.
 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 딤후 1:9, 딤텔 2:11.
 2.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육체가 되시어 사람이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사람이 접촉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 — 요 1:1, 14, 16-17.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사람의 영을 사용하여 누리며 (아들 안에서 체현 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재화되신) 삼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다 — 갈 6:18.
 4.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으로 전달되시는 신성한 삼일성,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세 방면으로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 고후 13:14, 민 6:22-27, 시 36:8-9.
 - a.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 자신이고(요 1:17, 고전 15:10),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며(요일 4:8, 16),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이다 — 고후 13:14.
 - b.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주님의 은혜가 첫 번째로 언급되었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책이기 때문이다 — 고후 1:12, 4:15, 6:1, 8:1, 9, 9:8, 14, 12:9.
 - c.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환시키고 전달하시는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 안에서 공급이 되신다.

- 5. 날마다 놀라운 신성한 전달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의 영을 넘치게 공급하고 계시며,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의 영을 받아들이고 분배해야 한다 — 요 1:16, 히 10:29하, 갈 3:2-5, 엡 3:2, 4:29.
- C.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의 누림을 위해 그들 안으로 하나님을 분배하는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다.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며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공급했다 — 엡 3:1-2, 행 20:24.
- D.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은혜의 생활, 곧 은혜의 체험이다. 이러한 생활을 하는 우리는 은혜의 청지기 직분, 곧 은혜를 분배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 — 고후 12:9, 딤후 4:22, 엡 3:2.
- E.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생활과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누림에서 나온다 — 고전 1:9, 고후 13:14.

IV. 교회들 안에서 책임을 지는 이들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 딤후 1:7, 9.

- A. 장로들은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이들로 안으로 분배해야 한다.
- B.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인도하며 교회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는 모든 이들은 자신이 이러한 신성한 청지기 직분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V.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신실한 청지기인 바울은 한 새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단순히 한 특정 지방에 있는 교회나 한 특정 성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한 새사람이었다 — 고전 4:1-2, 9:16-17, 골 3:10-11, 4:7-17.

- A. “만약 우리가 한 새사람을 의식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우리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한 새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분파적이지 않도록 주님을 앙망하기 원한다. 우리는 믿는 이로서 개인적으로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서 단체적으로나 분파적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 모두가, 즉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한 새사람이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31장, 295쪽)
- B. “우리는 또한 오늘날 이 땅 위에 또 다른 사람, 곧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하는 새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태어난 이 새사람은 지금 온 땅으로 두루 확산되며 자라고 있다. 우리가 이 새사람의 부분인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요한복음 강해(속편), 3권, 68-69쪽)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이 필요하다.

청지기 직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에서 청지기 직분이라고 번역된 헬리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는 에베소서 1장 10절과 3장 9절에서 ‘경륜’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것이다. 그 단어는 또한 에베소서 3장 2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고대의 용법에 따르면, 오이코노미아는 청지기 직분, 분배, 또는 행정을 의미한다. 바울 시대

에 많은 부유한 가족들은 청지기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책임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음식과 그 외의 물품들을 분배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커다란 가족, 곧 신성한 가정이 있다. 우리 아버지는 방대한 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정에는 많은 청지기들이 이 풍성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청지기 직분이다. 그러므로 청지기 직분이란 곧 분배이다.

여기에서 분배라는 단어는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을 그분이 선택하신 이들 안에 분배하시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분배가 바로 분배하는 사역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청지기 직분이다. 이러한 분배하는 사역은 또한 하나님의 행정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써 행정을 수행하신다. 이러한 청지기 직분, 이러한 분배, 이러한 행정이 곧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는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지기 직분이란 왕가(王家)나 상류 가정에서의 부(富)의 분배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왕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모든 것을 포함한 뛰어나신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은 특별히 부유하다.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풍성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이라 불리는 이러한 분배하는 봉사가 사도 바울의 일이었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이나 일꾼들이 많지 않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왕가(王家)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은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뛰어나신 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 안으로 분배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청지기 직분이 신약의 사역이다. 신약의 사역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성도들 안으로 분배했다. 이것이 오늘날 사역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경륜의 문제이고, 우리에게는 청지기 직분의 문제이다.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를 중요하지 않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사역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에 분배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온 성경의 중심 요점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에 분배하시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청지기 직분, 즉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하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이 경륜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안에 분배된 후, 우리는 그 풍성을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풍성은 하나님 편에서는 경륜이고, 우리 편에서는 청지기 직분이며, 그 풍성이 우리에게 의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분배가 된다.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함으로써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안에 놓여지는 하나님의 분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경륜과 청지기 직분과 분배가 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하는 데 앞장서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 안에 분배되실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배는 청지기 직분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러므로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의 지체들 사이에는 청지기 직분이 필요하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앞장서고 교회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그와 같은 하늘에 속한 청지기 직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평범한 기독교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단지

성경을 외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급하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서로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성도들의 가정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은 이러한 청지기 직분의 한 부분을 갖고 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바울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작다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이 청지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청지기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단지 사람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하는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매일매일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사람들 안에 분배함으로써 청지기 직분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이 청지기 직분의 한 몫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성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우리가 이사하는 어떤 가정을 돕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단순히 가구만 옮겨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 가족들에게, 특히 자매에게 공급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함 없이 이사를 돕는다면, 사실상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 어떤 가정의 가구들을 옮기는 것을 돕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봉사에 관한 우리의 모든 활동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는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을 때이다. 주인과 손님, 둘 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의 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실질적인 교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심지어 안내나 집회소 청소와 같은 일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다.

청지기의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한 종류는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다. 다른 한 종류는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고난이다. 이것은 사도들과 믿는 이들이 채울 필요가 있는 고난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과 관련지어 언급했다는 사실은 그 청지기 직분이 고난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에 참여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의 봉사와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청지기의 고난에 기꺼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완수하는 데 어떤 대가가 필요하더라도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 안에 분배함으로써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접대를 하는 것은 고난을 수반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정에 손님이 되는 것도 고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손님이 된 적이 있었다. 그 집의 주인들은 늘 변함없이 나를 아주 잘 돌보아 주었고 나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지 나의 집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 그 접대

가 아무리 적합할지라도 나는 항상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뻐한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또는 손님으로서 접대에 동참함으로써 양육되고 온전케 함을 받고 힘을 얻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 매우 기쁘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의 왕족의 구성원들 안에 분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받는, 크고 작은 온갖 종류의 고난이 모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음 메시지에서 지적하겠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구속을 성취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청지기는 사역자임

교회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바울은 그가 청지기로서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계시이며, 이 말씀은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신약에서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완전한 계시를 전해 주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비밀이다. 이 감추어진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와 몸에 관한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비밀이 계시된 것은 신성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일의 주요 부분이다.

‘영원부터’는 영원 이후를 의미하며, ‘모든 세대에’는 시간이 시작된 이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은 영원부터, 시간이 시작된 이후 각 시대를 거쳐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감추어져 있다.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를 포함한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나타났다.

바울 시대 이전에는 신성한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구약에서 주어졌다. 더욱이 하나님은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의 부분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나 신성한 계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많은 서신들을 쓸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이러한 완성을 특별히 그의 네 서신인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서 볼 수 있다.

신성한 계시가 사도들, 특별히 바울을 통하여 완성되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완성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할 때 말씀을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완전히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또는 완전하게 전하는 것이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다. 확실히 오늘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완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최근에 한 잡지는 미국에 오천만 명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겠는가? 극소수일 것이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온전히 전해지지는 않았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완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완성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말한 그 비밀임을 지적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온전한 복음으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을 벗어나 하늘로 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평안이나 기쁨이나 행복한 생활과도 관계가 없다. 완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 말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다. 이 비밀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 만약 그것이 감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닐 것이다.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은 지금 성도들의 전파를 통해 완성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골 1:27). 나는 수년 동안 복음 전파를 들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계신다고 말하는 메시지는 들어 본 적이 거의 없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전하는 것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지 않는다면, 신성한 계시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부족할 것이다. 계시 그 자체에는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이 수 세기 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의 몫을 이루지 않는다면, 실행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주님의 회복 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심을 굳게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러한 분으로 체험하지 못할 수 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또한 피조물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면에 대해 들을 때, 그는 혼란스러워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누군가가 그에게 이 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사람이시라는 것을 지적해 줄 필요가 있음을 가리킨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스테반은 하늘에 계신 사람의 아들을 보았다(행 7:56). 분명히 사람은 살과 뼈로 된 피조물이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과 뼈로 된 몸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 주셨다(눅 24:39).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러한 몸을 가진 사람이시므로, 그분을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전통의 영향 때문에, 많은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렇게 말하기를 꺼려 할지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가르침이 이교적(異敎的)인 가르침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이든 믿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주님의 회복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는 더 많은 청지기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이에 대해 부담을 가져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한 몫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을 통해 다른 믿는 이들이 양육을 받고 힘을 얻으며 확고해지고 또한 건축될 것이다.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는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된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상호적인 청지기 직분이 있기를 바란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공급한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모두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많이 누릴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하는 청지기 직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건축될 것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11장, 105-113쪽)*